

다시 새겨보는 6.25의 진실



이철영

(재)굿소사이어티 이사
전 경희대 객원교수

올해는 6.25가 발발한 지 만 66년이 되는 해이다. 6.25 이후 남북간 교류는 1971년 8월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적십자회 측에 남북이산가족 찾기를 위한 회담을 제의하면서 처음 물꼬를 텃다. 그러나 그 후 수 차례의 회담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1985년 9월 서울과 평양에서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 행사가 최초로 성사되면서 남북교류가 본격화했다.

그 후 6.25 발발 50주년이던 지난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간 첫 정상회담이 성사되었고 두 달 뒤인 2000년 8월 제1차 남북이산가족상봉이 이루어졌다. 2007년 10월에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지난 2015년 10월 제20차 이산가족상봉이 이루어졌듯이 외견 상으로는 남북교류가 크게 개선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이산가족들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이 걸핏하면 생트집을 잡아 가족상봉 행사를 정치적 흥정거리로 쥐고 흔들며 ‘개방’을 구실로 경제적 실리를 챙기면서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군사력 강화에만 총력을 기울여왔다. 북한과의 대화, 교류, 지원으로 얻은 대가가 고작 ‘핵무기 공포’인가 하는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남북관계의 현주소이다.

작년 8월 북한의 지뢰도발 사건 이후 우리 군은 한동안 중단해왔던 대북방송을 즉각 재개했다. 그리고 며칠 후 북한

의 사과를 받아내겠다던 정부는 의미가 모호한 북한의 ‘유감’ 표명을 명분으로 대북방송을 다시 중단했다. 그리고 나서 4개월 여 뒤인 올 1월 6일 북한은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하여 남북관계에 다시 찬물을 끼얹었고, 한 달 뒤인 2월 7일 다시 장거리로켓 발사실험을 하여 한국은 물론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에 끓는 물을 퍼부었다. 핵실험 직후 정부는 대북방송을 재개하고 로켓발사실험 사흘 후인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했다.

북한은 대화와 교류를 내세워 경제적 이득만을 챙겨가면서 6.25 전쟁을 벌인 지 60여 년이 지나도록 호전적인 도발의 수위를 계속 높여왔다. 2차에 걸친 양국정상회담 이후에도 제2차 연평해전(2002. 6. 29), 대청해전(2009. 11. 10.), 천안함 격침사건(2010. 3. 26) 등 도발의 수법이나 강도를 계속 높이다가 급기야는 2010년 11월 23일 1953년 7월 휴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토에 직접 포격을 가하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2006년부터 2016년에 이르기까지 4차에 걸쳐 핵실험을 하면서 군사적 도발의 위협을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무력도발을 계속하며 핵개발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 중에 6.25가 북한의 남침이라는 사실조차 부정하는 집단들이 공공연히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이런 불행한 현실을 바로잡는데 앞장서야 할 대

다수 우리 국민들을 위해 6.25 전쟁에 관한 진실을 객관적인 사실들을 통해 재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했던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용산 미군기지를 방문해 60년 전 6.25 한국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언급하며 미군 장병들을 격려하는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 그의 연설문 속에는 “한국전쟁이 지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쟁이 시작된 곳에서 끝났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이곳에서 싸운 사람들의 희생을 빗대어 ‘무승부를 위해 죽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약동하는 민주주의와 고마움과 희망으로 가득 찬 이 나라 국민들을 둘러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명백합니다: 이것은 무승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승리였습니다. 그때에도 승리였고, 오늘도 승리인 것입니다.”라는 대목이 있다. (Because the Korean War ended where it began geographically, some used the phrase “Die for a Tie” to describe the sacrifice of those who fought here. But as we look around at this thriving democracy and its grateful, hopeful citizens, one thing is clear: This was no tie. This was a victory. It was a victory then, and it is a victory today.)

미국 대통령이 6.25 전쟁을 일컬어 “이것은 승리. 그때에도 승리, 오늘도 승리.”라고 표현한 것은 나름대로 큰 의미를 지닌다. 만일 6.25가 남한이 북진통일을 하기 위해 북한을 침략한(북침) 전쟁이었고 미군이 이 침략전쟁에 참전한 것이라고 한다면 침략전쟁을 시작했던 국경에서 휴전을 한 것을 두고 승리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때에도 승리”라는 표현은 당시 공산침략자로부터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성공했다는 뜻이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기념비에는 “우리 국민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와 전혀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라는 명령에 따른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 만일 6.25가 남한이 벌인 침략전쟁이었다면 “지킨다(defend)”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뿐만이 아니다. 6.25 전쟁에는 미국을 위시한 16개국의 전투병력과 5개국의 의료지원팀이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40개국이 물자와 수송을 지원했고 6개국이 전후 복구를 지원하는 등 총 67개국이 6.25 전쟁에서 우리를 지원하였다. 이와 같은 기록은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단일 연합군으로 참전한 세계기록으로 공식 인정되어 기네스북에 등록되기까지 했다. 1953년 당시의 총 60개국에 불과했던 UN회원국 중 52개국과 교황청을 포함한 비회원국 15개국이 남한을 지원한 것이다.



▲ 1950년 화랑부대의 38선 돌파를 기념하는 조형물과 진격하는 한국군부대 모습(출처: 전원책팬카페 정치아카데미)

이와 같은 전세계적인 참전과 지원이 가능했던 것은 공산침략으로부터 민주주의와 세계평화를 수호한다는 분명한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6.25가 남한에 의한 침략전쟁이었다고 주장하려면 무슨 목적과 명분으로 거의 모든 UN회원국들과 교황청을 비롯한 15개국의 나라들이 이 아